

배포일시	2020. 5. 13.(수) 14:00 (총3매)	보도시점	2020. 5. 13.(수) 14:00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장 홍기만 주무관 손웅기
		전화번호	051-718-0431

##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한마디! 공모전 결과 발표

- 최우수 표어 ‘지구의 온도는 빨간불, 이제는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TBN 경남 교통방송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한마디!> 표어 공모 이벤트를 진행하여 우수작을 선정·발표했다.
- 부산지방기상청, TBN 경남교통방송과 협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 총 120건 접수되어, 그 중 5점(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이 선정되었다.
  - 기후변화와 교통을 연계하여 잘 표현한 최우수작은 ‘지구의 온도는 빨간불, 이제는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이다.
- 우수작 표어는 TBN경남교통방송 홍보캠페인 라디오 방송과 지역 유관기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이벤트 우수작은 ‘부산지방기상청 누리집(<http://busan.kma.go.kr>)과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brmaskylov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1 기후변화 표어 공모전 우수작품

등 급	표어 및 의미
최우수	지구의 온도는 빨간불, 이제는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온 자연이기에 종종 이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관계를 망각했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그러한 위험 신호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수	온실가스 거리두기! 녹색지구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익숙한 단어 거리두기를 이용하여 생활속에서 온실가스와 거리를 두듯 줄여나가면 그만큼 지구 환경도 푸르게 청정지구로 바로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장려	기후변화는 삶을 바꾸고 지구 환경은 당신을 바꿉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위험의 경각심을 강조함과 직장이 창원시민으로써 부산기상청과 tbn경남교통방송이 함께 펼쳐나간 이번 공모전을 가족과 함께 즐기며 토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는 줄이go, 푸른 나무는 살리go
	평소 기상변화에 관심이 많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구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기우(杞憂)가 아닙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얘기도 먼 훗날의 일도 아닌 지금 우리 생활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기우가 아닌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생각할 때라는 직관적인 의미입니다.	

□ 붙임2 기후변화 표어 공모전 우수작품 홍보배너

